

Factors Influencing the Political Orientation of Seoul Citizens: A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

Yunmi Kim [†] Tae-Hwan Kim [‡]

Abstract This paper analyzes the influence of factors such as income, age, gender, education level, and residential area on the political orientation of Seoul citizens using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models. The marginal effect of income shows that there is little change across most income brackets, but the probability of being conservative increases sharply in the highest income bracket, while the probabilities of being moderate and liberal decrease. The effect of age indicates that, as expected, the probability of becoming conservative increases and the probability of becoming liberal decreases as age increases. The impact of education is not linear; graduating from college increases the probability of being liberal and decreases the probability of being conservative. However, obtaining a graduate degree, such as a master's or doctorate, results in an increase in both liberal and conservative probabilities, while the probability of being moderate decreases. It was also found that women are more likely to be liberal than men and show very different patterns in the marginal effects of income, age, and education compared to men.

Keywords Political orientation, probability of political orientation, marginal effect.

JEL Classification C25.

*We are grateful to the two anonymous reviewers for their thoughtful comments and suggestions.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2025 Research Fund of the University of Seoul.

[†]Department of Economics, University of Seoul, 163 Seoulsiripdae-ro, Dongdaemun District, Seoul, Republic of Korea 02504. E-mail: kimy@uos.ac.kr.

[‡]Corresponding author. School of Economics, Yonsei University, 134 Shinchon-dong, Seodaemun-gu, Seoul, Republic of Korea 03722. E-mail: tae-hwan.kim@yonsei.ac.kr.

다항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이용한 서울시민의 정치성향 요인 분석 *

김윤미[†] 김태환[‡]

Abstract 본 논문은 2022 년의 횡단면자료를 사용하여 소득, 연령, 성별, 교육수준, 거주지역 등의 요인들이 서울시민의 정치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다항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소득의 한계효과는 거의 대부분의 소득구간에서 큰 변화가 없다가 최상층의 소득구간에서 급격하게 보수확률이 증가하고, 중도와 진보확률이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연령의 효과는 일반적으로 예상하는 것과 같이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보수화 될 확률이 증가하고 진보화 될 확률이 낮아진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교육의 영향은 단선적이지 않은데, 대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진보확률이 증가하고 보수확률은 감소한다. 반면에, 대학원을 마치고 석·박사학위를 취득하게 되면 진보·보수확률이 동반상승하고, 중도확률은 감소하는 패턴을 보인다. 여성은 남성보다 진보적일 확률이 높을 뿐 아니라, 소득의 한계효과, 연령의 한계효과 그리고 교육의 한계효과에서도 남성과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Keywords 정치성향, 정치성향확률, 한계효과.

JEL Classification C25.

*이 논문은 2025 년도 서울시립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694 02504. E-mail: kimy@uos.ac.kr.

[‡]교신저자.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134 03722. E-mail: tae-hwan.kim@yonsei.ac.kr

1. 서론

정치성향 또는 정치이념은 넓은 의미에서 사회의 한 구성원이 자신이 속한 사회공동체가 지향해야 할 이상적인 방향에 대해서 형성한 가치체계 또는 신념체계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엄격한 의미에서 그 사회에 속한 시민의 수만큼 다양한 정치이념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중요하다고 간주되는 요인들(예를 들면 국가의 역할, 경제 시스템, 개인의 권리, 사회적 정의 등)을 기준으로 하여 다양한 정치이념을 크게는 보수적 정치이념, 중도적 정치이념, 그리고 진보적 정치이념이라는 세가지의 범주로 종합하여 단순화시키는 접근을 취한다.

보수적 정치이념은 나라와 문화에 따라서 핵심 내용이 달라지긴 하지만 공통점은 기존의 전통적 제도, 관습 및 사회규범을 중시하고 변화보다는 기존의 사회적 질서 유지를 선호하는 신념체계라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진보적 정치이념은 개인의 존엄성, 평등, 자유를 중시하며, 개혁을 통하여 사회가 발전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기존의 전통적 제도, 관습 및 사회규범의 변경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신념체계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정치이념에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주는가 하는 주제에 대해서는 기존의 광범위한 해외 연구들이 존재한다. 본고에서는 사회적, 경제적 요인들을 포함한 인구통계학적 요인들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다. 교육은 이 범주에 속한 대표적인 요인이다. 정치적 성향에 대한 교육의 영향에 관하여 다양한 연구가 존재하는데, 그 결과는 일관적이지 않다. (e.g., Dunn, 2011; Weakliem, 2002; Weil, 1985)을 포함한 많은 기존의 연구들은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보다 진보적으로 변한다고 주한다. 하지만, Meyer (2017)는 교육의 증가가 보수화를 초래한다는 반대의 실증적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정치성향에 대한 연령의 영향에 관해서는 학계에서 또는 일반 대중들에게 받아들여지는 통념이 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정치적 성향이 보수적으로 변한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이러한 통념을 뒷받침하는 경구 중의 하나는 “If you are not a liberal at twenty, you have no heart, and if you are not a conservative at forty, you have no brain.” 이고,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론들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사람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직장, 가정, 책임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고, 불확실성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이론이다. 이러한 경향은 이상적인 세계관의 추구에서 멀어지게 만들며, 보수적인 관점과 더욱 부합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연령이 정치성향을 보수화 시키는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연구한 사례는 Cornelis *et al.* (2009)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연령효과의 정확한 측정은 어려운 문제

이며, 상반되는 이론도 존재한다. ‘감수성 발달 가설(Impressionable years hypothesis)’이 대표적인데, 헝가리 사회학자인 Karl Mannheim이 제기한 이 가설에 따르면 개인의 정치적 성향은 감수성이 민감한 청년기에 형성이 된 후 고착되어 이후에는 나이가 들어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가설을 지지하는 연구로는 Krosnick and Alwin (1989)이 있다.

소득이 정치적 성향에 미치는 영향 또한 중요한 이슈이다. 일반적으로는 소득이 높을수록 보수적 성향이 강화된다고 이해되지만, 그 구체적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론적 설명이 존재한다. 사회화이론(Socialization Theory)은 정치 성향이 주로 청년기에 형성되어 이후 크게 변하지 않으며, 소득 증가가 보수화를 촉진하더라도 그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본다. 기대이론(Anticipation Theory)은 정치 성향과 소득 간의 강한 상관관계를 강조하며, 합리적인 개인은 미래의 소득 궤적을 예측하고 이에 따라 현재의 정치 태도를 조정한다고 본다. 근시안적 자기이익이론(Myopic Self-Interest Theory)은 현재의 소득 수준이 현재의 정치 태도를 직접적으로 결정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여러 이론들에 대해 보다 자세한 설명과 관련 문헌에 대한 정보는 Helgason and Rehm (2023)을 참고할 수 있다.

정치성향의 성별 격차는 한국사회에서 특히 간과할 수 없는 이슈이다. 이는 한국에서 유달리 극심한 젠더갈등과 결합하는 양상을 띄고 있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이 심한 국가 중 하나였다. 오랜 기간 이러한 차별이 젠더갈등의 기제로 작용하였으나 전면적인 사회적 이슈로 이어지지 못하다가, 2018년 미투운동을 계기로 젠더갈등이 한국사회의 전면부에 부상하게 된다. 원래 동·서양 공히 여성유권자가 남성보다 진보적인 성향을 보이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젠더갈등 증폭의 정치적 동기로 인해, 남성의 보수화와 여성의 진보화가 더욱 심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인다. 2025년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의 결과에서도 남성과 여성 간에 보수후보와 진보후보에 대한 득표율의 현저한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고에서는 양성(gender) 간의 정치적 성향 차이를 수치적으로 측정하고자 한다. 양성 간의 정치적 성향 차이를 폭넓고 깊이 있게 분석한 결과는 Lizotte (2020)에 자세히 나와 있다

마지막으로 정치성향의 차이를 분석함에 있어서 지역적 요인을 고려하고자 한다. 도시와 시골 간의 정치적 성향 차이는 비단 한국에 국한된 현상은 아니다. 하지만 한 도시내에서 커다란 정치적 성향의 차이는 흔한 일이 아닌데, 강남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와 그 이외의 지역 간의 차이가 그런 예에 해당된다. 따라서, 강남3구와 비강남3구의 정치성향 차이를 수치적으로 측정해보는 것도 유의미한 작업이다.

본고는 다음과 같은 구성을 가지고 있다. 제2절에서는 본고에서 사용하는 자료와 변수들을 설명하고, 제3절에서는 본고에서 사용하는 계량기법인 다항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설명한다. 기본적인 실증 분석 결과는 제4절에서 제시되고, 설명변수들 중에서 특히 소득과 교육수준의 범주 구별방식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제5절에서 분석된다. 젠더 간의 차이에절 대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결과는 제6절에서 살펴보고 있다. 제7절은 본고의 결론을 담고 있다. 절

2. 자료의 설명

본고에서 사용하는 정치이념에 대한 자료는 ‘서울서베이’에서 제공하는 범주형 자료(categorical variable)이다. 서울시는 도시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2003년부터 매년 2만 가구를 임의 추출하여 다양한 질문이 포함된 서베이를 진행하여 서울 시민들의 의견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다. 이렇게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서울서베이’라고 부른다.

추출대상 모집단은 서울시 거주 가구 및 만 15세 이상 가구원이다. 임의 추출방식은 층화집락추출법(stratified cluster random sampling method)를 사용하며, 가구 방문 면접 조사방식으로 진행된다. 본고에서는 연구시점 기준 가장 최근에 실시되고 공개된 2022년도의 횡단면자료(cross-section data)를 분석에 사용한다. 2022년도의 자료의 조사기간은 2022년 9월 15일부터 10월 31일이었으며, 추출된 2만 가구에 속한 만 15세 이상 가구원의 총수는 39,340명이다. 본고에서 사용된 모든 자료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이라는 웹사이트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본고의 핵심 변수는 정치이념 또는 정치성향이다. 2022년 조사표의 질문지에 따르면 ‘사회참여’에 해당되는 질문 중에서 문항 23번은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 있다: “귀하는 어느 정도 보수적 또는 진보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자는 ‘매우진보’ (극좌, 등급=1)에서부터 ‘매우보수’ (극우, 등급=11)에 이르기까지의 11개의 등급에 자신의 위치를 선택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정가운데(등급=6)가 ‘중도’를 나타낸다. 그림 1은 이러한 11등급에 얼마나 많은 서울시민들이 분포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예상과 부합되게 중도층이 33.2%로 압도적으로 많고, 그 다음으로는 ‘온건적진보’ (등급=5, 비중=11.2%) 또는 ‘온건적보수’ (등급=7, 비중=14.6%)가 다수이며 극좌와 극우에 다가갈수록 비중이 줄어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한가지 흥미로운 점은 정치성향 분포가 보수층의 비중이 다소 많은 비대칭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매우진보’에서부터 ‘온건적진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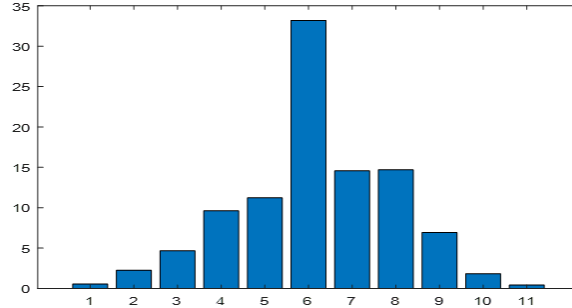


그림 1: 2022년 서울시민 정치성향의 확률분포. 이 그림은 왼쪽 1번의 극좌로부터 중앙 6번의 중도를 지나 가장 오른쪽 11번의 극우에 이르기까지의 정치성향의 분포를 %로 표현하고 있다.

Figure 1: DISTRIBUTION OF POLITICAL IDEOLOGIES. This figure shows the percentage distribution of political orientations, from the extreme left (1) through the center (6) to the extreme right (11).

에 이르기까지의 5개 등급을 통합하여 ‘진보’로 취급하고, 마찬가지로 ‘매우보수’에서 ‘온건적보수’의 5개 등급을 통합하여 ‘보수’로 취급하기로 한다. 이렇게 분류된 39,340명의 정치성향의 분포는 표 1에서 볼 수 있다. 진보성향 시민의 비중은 28.3%, 중도성향은 33.2%, 그리고 보수성향은 38.5%로 보수성향의 비중이 제일 큰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세 개의 범주를 가지고 있는 정치성향 변수가 본고에서 사용될 다항 로지스틱 회귀모형의 종속변수이다. 설명변수로 사용될 변수들은 소득수준, 나이, 성별, 교육수준, 거주지역 등이며 모든 설명 변수들은 ‘서울서베이’에서 제공되는 변수들이다. 설명변수 중에서 나이를 제외한 모든 변수들은 범주변수이다.

소득변수는 개인의 월소득을 측정하는데, 범주는 ‘100만원미만,’ ‘100

년도	보수	중도	진보
2022	38.5	33.2	28.3

표 1: 정치이념의 분포. 이 표는 2022년의 서울시민의 정치이념분포를 %로 표현한 것이다.

Table 1: POLITICAL IDEOLOGY DISTRIBUTION. This table presents the distribution of political ideology among Seoul citizens in 2022, expressed as percentages.

만원과 300만원사이,’ ‘300만원과 500만원사이,’ ‘500만원과 700만원사이,’ ‘700만원과 900만원사이,’ 그리고 ‘900만원이상’ 이라는 6개의 범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범주 별 소득분포는 35%, 28%, 31%, 5%, 0.7%, 0.3%이다. ‘100만원미만’ 범주의 비중이 가장 큰 이유는 소득이 없는 가정주부와 학생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성별변수는 ‘남자,’ ‘여자’ 두 범주이고 각 범주 별 분포는 47.1%, 52.9%로 여성의 비중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교육수준변수의 범주는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학졸,’ ‘대졸,’ ‘대학원졸’로 5개의 범주이고 범주 별 분포는 10%, 36%, 21%, 32%, 1%이다.

거주지역변수를 고려한 이유는 한국사회에서 강남3구가 가지는 지역적 특수성 때문이다. 대구·경북을 제외하면 가장 보수적인 지역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정치성향을 설명하는 모형에서 제외할 수 없는 변수라고 판단했다. 거주지역변수의 범주는 ‘강남3구’와 ‘강남3구이외’로 2개의 범주이고 자료에서의 분포는 각각 14%와 86%이다.

3. 다항 로지스틱 회귀모형

본고의 핵심 변수인 정치성향을 y_i 라고 표기하면 y_i 는 다음과 같은 3개의 값을 취한다: 즉, i 번째 사람이 보수면 0의 값을, i 번째 사람이 중도면 1의 값을, 그리고 i 번째 사람이 진보면 2의 값을 가진다. 이러한 3개의 값을 가지는 이산형 변수를 분석할 때 자연스러운 회귀모형은 다항 로지스틱 회귀모형이다.¹

앞에서 언급한 소득수준, 나이, 성별, 교육수준, 거주지역 등의 설명변수들을 모두 모아 놓은 벡터를 X_i 라고 표기하자. 그러면 i 번째 사람이 중도의 정치이념을 가질 확률은 아래와 같이 설정된다:

$$P(y_i = 1|X_i) = \frac{e^{X_i'\beta_1}}{1 + e^{X_i'\beta_1} + e^{X_i'\beta_2}}. \quad (1)$$

¹제2절에서 설명하였듯이 서울서베이의 원자료에서 정치성향은 11점 척도로 분류되어 있다. 동일한 정치성향내에서는 각각의 점수가 ‘순서’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1점인 ‘극좌’에서 시작하여 5점인 ‘온건 진보’의 그룹에서는 각 점수가 진보적 성향의 강도에 반비례하게 ‘순서’가 의미가 있다. 하지만, 상이한 정치성향들 간에서는 ‘순서’가 의미를 상실하기 때문에 ‘순서형로지스틱모형(ordered logit model)’이나 11점 척도를 연속변수로 간주하는 방법보다는 본고에서 사용하는 다항로지스틱모형이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i 번째 사람이 진보의 정치이념을 가질 확률은 아래와 같이 설정된다:

$$P(y_i = 2|X_i) = \frac{e^{X_i'\beta_2}}{1 + e^{X_i'\beta_1} + e^{X_i'\beta_2}}. \quad (2)$$

위의 2개의 확률이 정해지면, i 번째 사람이 보수의 정치이념을 가질 확률 ($P(y_i = 0|X_i)$)은 자동적으로 결정된다:

$$P(y_i = 0|X_i) = 1 - P(y_i = 1|X_i) - P(y_i = 2|X_i).$$

앞으로는 이 3개의 확률을 ‘정치성향확률’ 또는 ‘정치확률’ 이라고 부르도록 하겠다.

위의 식(1), 식(2)에는 두 개의 모수벡터 β_1 과 β_2 가 있는데, 이 모수들은 아래에서 정의되는 로그우도함수 (log-likelihood function)를 최대화시키는 최대우도법 (Maximum Likelihood Method)을 사용하여 추정한다:

$$L(\beta_1, \beta_2) = \sum_{i=1}^N \sum_{j=0}^2 \mathbb{I}(y_i = j) \ln(P(y_i = j|X_i)) \quad (3)$$

위의 식(3)에서 N 은 관찰치의 수이고, $\mathbb{I}(\cdot)$ 은 0 또는 1의 값을 가지는 지시 함수 (indicator function)이다.

일반적인 선형회귀모형에서는 모수인 β 가 해당 설명변수의 한계효과 (marginal effect)를 직접적으로 측정한다. 하지만, 로지스틱 회귀모형에서는 한계효과가 β 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X_i 의 k 번째 변수인 $X_{i,k}$ 가 연속변수인 경우, $X_{i,k}$ 가 ‘중도확률 $P(y_i = 1|X_i)$ ’ 과 진보확률 ‘ $P(y_i = 2|X_i)$ ’에 미치는 한계효과는 아래의 식(4)와 같이 계산된다. 여기서 표기의 단순화를 위하여 $P_j = P(y_i = j|X_i)$ 라고 정의한다:

$$\frac{\partial P_j}{\partial X_{i,k}} = P_j \times (\beta_{j,k} - P_1\beta_{1,k} - P_2\beta_{2,k}). \quad (4)$$

식(4)에서 j 는 1 또는 2의 값을 취한다. 식(4)의 한계효과는 β_1 과 β_2 의 추정치를 식(4)에 대입함으로써 추정된다. 그런데 여전히 남아 있는 문제는 한계효과가 X_i 의 함수이기에 X_i 값이 개인에 따라 달라지면 한계효과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 일반적인 관행에 따라 X_i 의 모든 개인에 대한 평균값인 $\bar{X}$ 에서 계산한 한계효과를 실증분석에서 보고하기로 한다. 또한 $X_{i,k}$ 가 더미변수 (dummy variable)인 경우에는 위의 식(4)대신에 아래의 식(5)

로 한계효과를 계산한다:

$$\frac{\partial P_j}{\partial X_{i,k}} = P(y_i = j | \bar{X}_{(X_{i,k}=1)}) - P(y_i = j | \bar{X}_{(X_{i,k}=0)}). \quad (5)$$

위의 식 (5)에서 $\bar{X}_{(X_{i,k}=1)}$ 은 평균벡터인 $\bar{X}$ 에서 $X_{i,k}$ 의 값만 1로 취하고, $\bar{X}_{(X_{i,k}=0)}$ 은 $X_{i,k}$ 의 값만 0을 가진다. 식 (4)또는 식 (5)의 계산에는 $X_{i,k}$ 의 계수값만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β_1 과 β_2 의 모든 계수 값들이 반영되기 때문에 한계효과와 통계적 유의성은 $X_{i,k}$ 계수값의 통계적 유의성과 달라질 수 있다. 본고에서는 한계효과와 표준오차는 델타방법(δ -Method)을 사용하여 구한다.

4. 실증 분석 결과

식 (1), (2), (3)의 다항 로지스틱 회귀모형의 추정 결과가 표 2와 표 3에 제시되고 있다. 표 2는 식(1)의 중도확률을 결정하는 모수벡터 β_1 의 추정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표 3은 식(2)의 진보확률을 결정하는 모수벡터 β_2 의 추정결과를 나타낸다. 두 표에 나타난 수치결과는 β 추정값, β 추정값의 표준오차, 그리고 위의 식 (4), (5)의 한계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델타방법으로 구해진 한계효과와 표준오차는 모든 경우에 0에 근접하기 때문에 따로 보고하지 않았다. 즉, 표에서 제시된 한계효과는 모두 통계적 유의수준 1%에서 유의성을 가진다.

먼저 소득수준이 정치성향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소득변수의 경우에 기준이 되는 범주는 ‘월 100만원미만’이다. 중도확률과 진보확률 공통으로 기준인 ‘월 100만원미만’에서 소득이 ‘100만원-300만원’으로 증가하는 경우 β 계수는 증가한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소득이 증가할수록 β 계수는 음의 방향으로 부호가 바뀌고, 점차적으로 음의 방향으로 커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정치성향확률에 대한 소득의 각 구간별 한계효과가 그림 2에 나타나 있다. 그림에서 가로축은 월소득으로 각 소득구간을 그 구간의 중간값으로 나타냈고, 9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000만원으로 표기했다. 그림을 보면 소득이 증가할수록 보수확률에 대한 한계효과는 점진적으로 증가하다가 최고소득 구간에 진입하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대로 중도확률에 대한 한계효과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한편, 진보확률에 대한 한계효과는 거의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지 않다가 최고소득구간에 진입하면 갑자기 17% 정도 하락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소득이 증가함에 따른 이러한 한계효과와 변화는 기존 문헌에서의 결과들과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설명변수	기준변수	β_1		한계효과
		추정값	t-통계값	
상수		1.09***	13.48	0.15***
100만원-300만원	100만원미만	0.11***	3.22	0.01***
300만원-500만원		-0.02	-0.59	0.01***
500만원-700만원		-0.22***	-3.29	-0.02***
700만원-900만원		-0.48***	-3.01	-0.08***
900만원 이상		-1.27***	-4.89	-0.16***
연령		-0.03***	-27.32	-0.003***
여성	남성	0.21***	7.44	0.03***
고등학교졸	중학교졸이하	-0.03	-0.61	-0.04***
전문대졸		0.15***	2.79	-0.01***
대학졸		0.13**	2.47	-0.05***
대학원졸		-0.30*	-1.92	-0.15***
강남3구	강남3구이외	-0.16***	-4.61	0.01***

표 2: ‘중도확률’에 대한 다항 로지스틱 추정결과 (모수벡터 β_1). *, **, *** 기호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이 표는 ‘중도확률’에 대한 다항 로지스틱 회귀식을 추정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Table 2: THE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RESULTS FOR THE PROBABILITY OF BEING POLITICALLY CENTRIST. This table reports the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results for the probability of being politically centrist.

다음으로 설명변수 중에서 유일하게 범주변수가 아닌 연령의 효과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표 2와 표 3에 나타난 중도확률과 진보확률의 β 의 추정치는 모두 -0.03이다. 식(4)로 계산된 연령의 중도확률에 대한 한계효과는 -0.3%, 진보확률에 대한 한계효과는 -0.4%이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 중의 하나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보수화된다는 것에 비추어서 이와 같은 한계효과의 크기는 너무 작아 보인다. 하지만, 이는 평균에서 계산된 한계효과이다. 즉, 본고에서 사용된 연령변수의 평균은 53세이므로, 진보확률에 대한 한계효과 -0.4%의 정확한 해석은 평균 연령이 53세에서 54세로 연령이 한 단위 증가할 때 정치성향이 진보적으로 바뀔 확률이 0.4% 감소한다는 것이다. 그 경우 중도화 될 확률도 0.3% 감소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설명변수	기준변수	β_2		한계효과
		추정값	t-통계값	
상수		0.97***	11.06	0.10***
100만원-300만원	100만원미만	0.15***	4.46	0.02***
300만원-500만원		-0.14***	-3.70	-0.03***
500만원-700만원		-0.27***	-3.94	-0.03***
700만원-900만원		-0.30**	-1.98	-0.02***
900만원 이상		-1.53***	-5.46	-0.17***
연령		-0.03***	-34.23	-0.004***
여성	남성	0.18***	5.95	0.02***
고등학교졸	중학교졸이하	0.34***	6.18	0.07***
전문대졸		0.46***	7.34	0.08***
대학졸		0.81***	13.01	0.16***
대학원졸		0.85***	5.92	0.23***
강남3구	강남3구이외	-0.53***	13.68	-0.09***

표 3: ‘진보확률’에 대한 다항 로지스틱 추정결과 (모수벡터 β_2). *, **, *** 기호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이 표는 ‘진보확률’에 대한 다항 로지스틱 회귀식을 추정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Table 3: THE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RESULTS FOR THE PROBABILITY OF BEING POLITICALLY PROGRESSIVE. This table reports the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results for the probability of being politically progressive.

보수화 될 확률은 0.7% 증가한다고 할 수 있다.

17세부터 90세까지 모든 연령층에서의 한계효과를 그림 3이 보여주고 있다. 표 2와 표 3에 보고된 평균연령 53세의 한계효과는 점으로 표시되어 있다. 중도확률과 진보확률의 한계효과는 모든 연령층에서 음의 값이고 반대로 보수확률에 대한 한계효과는 모든 연령층에서 양의 값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도확률과 진보확률에 대한 한계효과가 모든 연령층에서 음의 값이라는 것은 두 확률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지속적으로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진보확률에 대한 한계효과가 더 큰 음의 값을 가진다는 것은 진보확률이 중도확률보다 더 빠른 속도로 하락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실제로, 연령의 변화에 따른 정치성향확률의 변화가 그림 4에 있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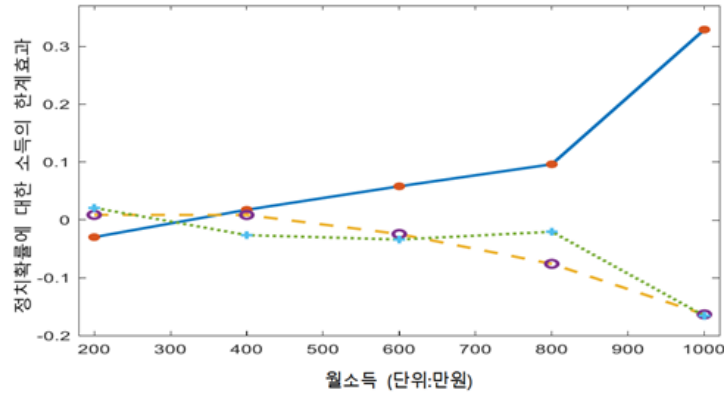


그림 2: 정치확률에 대한 소득의 한계효과 (실선: 보수확률, 파선: 중도확률, 점선: 진보확률). 이 그림은 ‘월100만원미만’을 기준소득범주로 사용하여 계산한 소득의 한계효과를 보여준다.

Figure 2: MARGINAL EFFECTS OF INCOME ON POLITICAL PROBABILITIES (SOLID LINE: CONSERVATIVE PROBABILITY; DASHED LINE: CENTRIST PROBABILITY; DOTTED LINE: LIBERAL PROBABILITY). This figure shows the marginal effects of income relative to the reference group ‘less than 1 million KRW per month.

한계효과의 변화와 부합된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결과적으로 연령이 높은 집단일수록 보수화될 확률은 급속히 높아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한계효과의 분석에서 예측한 것처럼, 연령이 늘어날수록 진보화 될 확률은 빠르게 낮아지는 반면 중도화 될 확률은 완만하게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진보확률과 보수확률이 교차하는 나이는 대략 40대 초반으로 보인다. 강조할 점은 그림 4에 나타난 정치성향확률의 변화는 회귀에 사용된 다른 모든 설명변수가 평균값에 고정된 상태에서 나이만 증가함에 따라서 정치성향확률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여준다는 것이다. 그림 4의 해석에서 주의할 점은 이 결과가 횡단면 자료를 바탕으로 도출된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개인의 정치성향의 시간적 변화 과정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동일한 개인이 연령이 높아질수록 보수 성향이 강화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는 없다. 이러한 해석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종단자료를 이용해야 한다.

성별에 따른 정치성향확률의 차이 또한 흥미로운 부분이다. 중도확률과 진보확률에 대한 여성의 한계효과는 각각 3%와 2%이다. 이는 여성이 남성에게 비해서 중도화 될 확률이 3% 높고, 진보화 될 확률이 2% 높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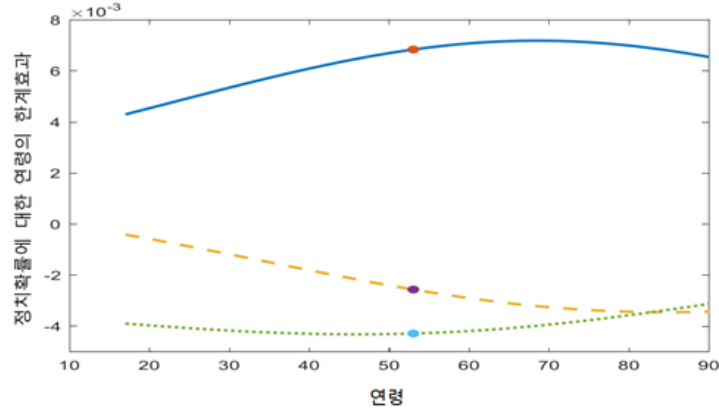


그림 3: 정치확률에 대한 연령의 한계효과 (실선: 보수확률, 파선: 중도확률, 점선: 진보확률). 이 그림은 연령의 정치확률에 대한 한계효과를 보여준다.

Figure 3: MARGINAL EFFECTS OF AGE ON POLITICAL PROBABILITIES (SOLID LINE: CONSERVATIVE PROBABILITY; DASHED LINE: CENTRIST PROBABILITY; DOTTED LINE: LIBERAL PROBABILITY). This figure shows the marginal effects of age on political probabilities.

역으로 말하면 남성은 여성에 비해서 보수화될 확률이 5% 높다. 이는 서론에서 언급한 젠더갈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현상이라고 판단된다. 남성에게 비해 여성이 상대적으로 진보화 되는 경향은 한국사회에서 중요한 사회적 이슈이기에 이 문제는 이후 6절에서 더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다음으로는 정치성향확률에 대한 교육수준의 영향을 살펴보도록 한다. 교육변수에서 기준이 되는 범주는 ‘중학교졸이하’이다. 먼저, β 는 중도확률에서 ‘고등학교졸’, 더미변수만 유의성이 없고 나머지 모든 교육수준변수들이 중도진보확률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또한 β 계수의 추정치를 보면 진보확률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계수 값이 양의 방향으로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도 한계효과의 분석을 그림으로 간단히 표현할 수 있는데, 그림 5에 각 정치성향확률별로 교육의 한계효과가 나타나 있다. 기준이 되는 ‘중학교졸이하’에 비해 교육수준이 증가하면 보수확률에 대한 한계효과는 점진적으로 감소하다가 대학원을 졸업하면 다시 반등한다. 중도확률에 대한 한계효과는 전문대졸 이후 학력이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한다. 반면에 진보확률에 대한 한계효과는 ‘전문대졸’ 이후로 급격히 상승한다. 예를 들어,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은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에 비해 진보화 될 확률이 23%가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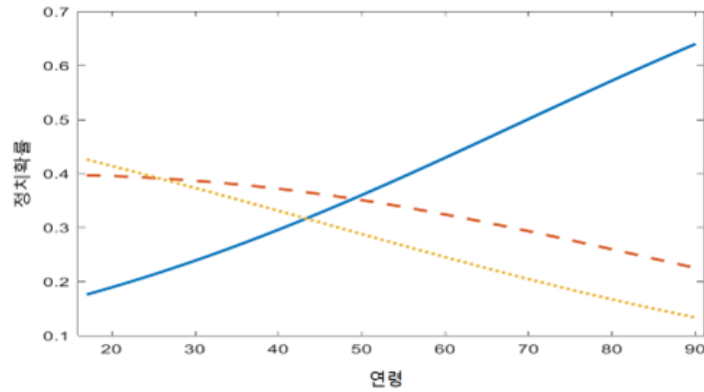


그림 4: 연령에 따른 정치확률의 변화 (설명변수들의 통제효과 반영) (실선: 보수확률, 파선: 중도확률, 점선: 진보확률). 이 그림은 연령에 따른 정치확률의 변화를 보여준다.

Figure 4: CHANGES IN POLITICAL PROBABILITIES BY AGE (SOLID LINE: CONSERVATIVE PROBABILITY; DASHED LINE: CENTRIST PROBABILITY; DOTTED LINE: LIBERAL PROBABILITY). This figure shows the changes in political probabilities by age.

그림 5에서 나타나는 흥미로운 점은 대학원 학위 보유자에서 보수와 진보 성향이 동시에 강화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물론, 진보성향이 강화되는 정도가 보수성향이 강화되는 정도에 비해 훨씬 크긴 하지만, 교육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보수성향확률이 감소하다가 대학원졸업 이후에 다시 강화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관찰된 대학원 졸업자의 특이한 패턴(즉, 중도확률의 감소와 동시에 진보 및 보수 확률의 동반 상승)은 Lee and Tipoe (2024)의 연구 및 Gross and Simmons (2007)의 발견과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다. 이전의 연구들은 대체로 교육수준의 상승은 진보성향을 강화한다는 주장을 하는데 반해, Lee and Tipoe (2024)는 고등교육이 단순히 진보화를 촉진하기보다는 사회 내 이념적 양극화를 심화시킨다고 주장하고 있고, Gross and Simmons (2007)는 미국 교수 집단이 전반적으로 진보적 성향을 띠면서도 학문 분야에 따라 이념적 성향이 뚜렷하게 보수와 진보로 분화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원 과정이 특정 전공 및 전문직 진입을 통해 상이한 가치 정렬을 강화함으로써, 일부 집단은 진보적 성향을, 또 다른 일부는 보수적 성향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해석은 고등교육이 경제적 가치판단에서는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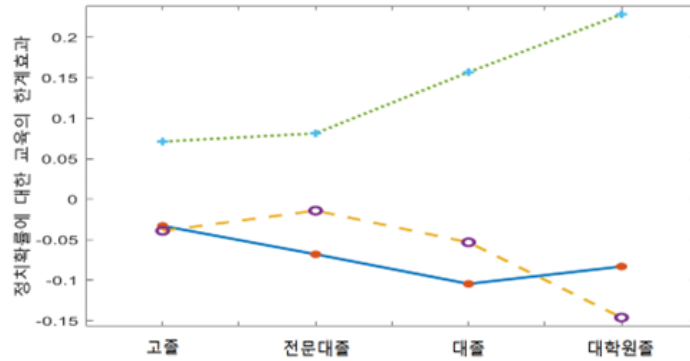


그림 5: 정치확률에 대한 교육의 한계효과 (실선: 보수확률, 파선: 중도확률, 점선: 진보확률). 이 그림은 ‘중학교졸이하’를 기준범주로 사용한 정치확률에 대한 교육의 한계효과를 보여준다.

Figure 5: MARGINAL EFFECTS OF EDUCATION ON POLITICAL PROBABILITIES. Marginal effects of education on political probabilities, with ‘junior high school or below’ as the reference category (solid line: conservative probability; dashed line: centrist probability; dotted line: liberal probability).

수적 성향을 강화시키는 반면 환경문제나 사회·문화적 이슈들에 대해서는 진보적 성향을 강화시킨다는 Weakliem (2002)의 발견과도 부합한다.

대학원졸업자에서 진보와 보수성향이 동시에 강화되는 현상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고려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자기선택효과(self-selection effect)이다. 즉, 대학원에 진입하는 집단은 이미 정치적으로 보다 극화된 성향을 가진 개인들이 많을 수 있으며, 이는 중도보다는 진보 또는 보수적 성향으로의 자기 선택적 편입을 의미한다. 자기선택효과가 부분적으로 있을 수 있음을 암시하는 내용이 교육수준을 조건으로 하는 정치성향의 조건부확률분포를 보여주는 표 5에 나타나 있다. 표 5는 각 교육수준별로 정치성향집단의 분포를 보여주는데, 교육수준이 상승함에 따라 보수층의 비중이 점진적으로 작아지는데 대학원졸업군에서는 갑자기 상승함을 볼 수 있다. 이상의 추론을 종합적으로 볼 때, 본 연구의 결과는 고등교육수준의 상승이 반드시 단선적인 정치성향의 변동을 의미하지 않으며, 오히려 중도층의 축소와 양극단의 강화라는 구조적 변화를 내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강남3구의 거주여부가 정치성향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중도확률과 진보확률을 모두 강남3구의 더미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적이다. 계수 추정치는 각각 -0.16과 -0.53으로 음의 값이다. 강남3구의

중도확률에 대한 한계효과는 0.01이고 진보확률에 대한 한계효과는 -0.09이다. 즉, 강남3구에 거주하는 시민은 다른 지역 시민에 비해서 중도층이 될 확률을 1% 높고, 진보층이 될 확률은 9% 낮다. 따라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보수층일 확률은 8% 높다고 볼 수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러한 한계효과는 강남3구와 강남3구이외 지역 간에 소득수준, 연령, 교육수준, 그리고 성별의 차이를 통제한 후의 효과이다.

5. 소득과 교육수준의 범주 구분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서울서베이의 원자료에서는 소득변수가 50만 원 단위로 범주화 되어 있다. 즉, ‘50만 원 미만’에서 ‘1,000만 원 이상’까지 총 21개의 범주로 세분화되어 있는데, 앞장의 분석에서는 다중공선성의 가능성을 줄이고 모형의 단순성을 위해서 소득 변수를 200만원 단위로 묶어 6개의 범주로 재구성하여 설명변수로 사용하였다. 교육수준변수 또한 원자료에서는 ‘무학’, ‘초등학교졸’, ‘중학교졸’, ‘고등학교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졸’로 모두 7개의 범주로 세분화되어 있다. 범주 별 분포는 0.3%, 3.6%, 6.4%, 36.2%, 20.5%, 32.1%, 0.9%이다. 우선 ‘무학’의 비중이 매우 적고 또한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의무교육인 점을 고려하여, 앞장에서는 ‘무학’, ‘초등학교졸’, ‘중학교졸’을 모두 묶어서 ‘중졸이하’로 설정하여 단순화된 범주를 회귀분석에 사용하였다.

본장에서는 소득범주 및 교육범주를 더 세분화하여 사용할 경우 앞장에서 도출된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다. 교육수준의 경우 원자료의 세분화된 범주가 7개밖에 없으므로 그대로 사용하여도 무방하지만, 소득의 경우에는 21개의 범주를 100만원 단위로 묶어 11개의 범주로 세분화하였다.

먼저, 세분화된 소득범주를 사용하는 경우, 소득의 정치성향확률에 대한 한계효과를 그림 6에 표시하였다. 여기서 기준은 앞장과 마찬가지로 ‘100만원미만’이다. 소득범주를 세분화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인 그림 2와 비교하였을 때,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보수, 중도, 진보 정치성향확률에 대한 한계효과의 전반적인 변화패턴 및 방향의 일관성은 유지되었다. 즉, 소득이 증가할수록, 보수화될 확률은 증가하고 중도 및 진보확률은 점진적으로 감소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소득범주를 세분화함으로써 새로이 발견된 사실은 소득이 일정 수준(대략 월 700만원에서 900만원사이)에 도달하면 보수확률이 한번 낮아졌다가, 이 후의 고소득 구간에서 다시 급상승한다는 것이다. 즉, 소득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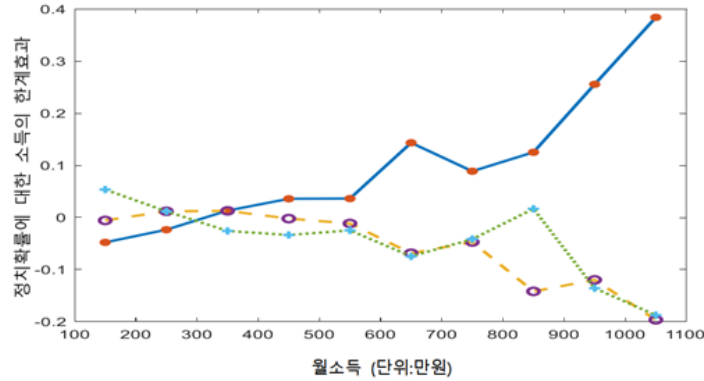


그림 6: 정치확률에 대한 소득의 한계효과: 소득범주를 100만원단위로 세분하는 경우 (실선: 보수확률, 파선: 중도확률, 점선: 진보확률). 이 그림은 소득을 100만원단위로 세분하는 경우 기준소득범주인 ‘월100만원미만’을 사용한 소득의 한계효과를 보여준다.

Figure 6: MARGINAL EFFECTS OF INCOME ON POLITICAL PROBABILITIES: WHEN INCOME IS SUBDIVIDED INTO 1 MILLION KRW INCREMENTS (SOLID LINE: CONSERVATIVE PROBABILITY; DASHED LINE: CENTRIST PROBABILITY; DOTTED LINE: LIBERAL PROBABILITY). This figure shows the marginal effects of income using the reference group ‘less than 1 million KRW per month’ when income is subdivided into 1 million KRW increments.

보수확률에 대한 한계효과가 단조증가의 형태는 아니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소득의 진보확률에 대한 한계효과도 단조감소가 아니라, 그 해당 소득 수준에서는 진보확률이 상승했다가 다시 급격히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교육을 세분화할 경우의 한계효과는 그림 7에 보여지고 있다. 여기서의 기준범주는 ‘무학’이다. 교육의 한계효과를 분석한 기존의 그림 5와 비교할 때 본질적인 변화는 관찰되지 않는다. 교육수준이 증가할수록 진보확률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중도 및 보수확률은 점진적으로 감소한다. 또한 대학원을 졸업하면 보수확률이 다소 반등한다는 것도 동일하게 관찰된다. 세분화로 인한 새로운 발견은 ‘중학교졸’의 경우 진보확률이 다소 감소하고, 반면에 보수, 중도확률은 다소 증가하여, 교육수준 한계효과의 변화가 소득과 마찬가지로 단조변화가 아님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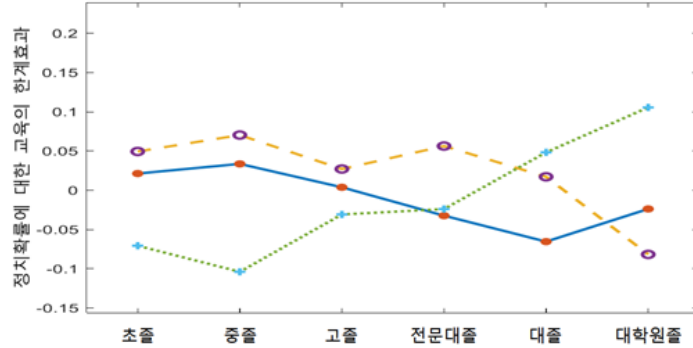


그림 7: 정치확률에 대한 교육의 한계효과: 교육범주를 세분하는 경우 (실선: 보수확률, 파선: 중도확률, 점선: 진보확률). 이 그림은 ‘무학’을 기준으로 주로 사용한 정치확률에 대한 교육의 한계효과를 보여준다.

Figure 7: MARGINAL EFFECTS OF EDUCATION ON POLITICAL PROBABILITIES: WHEN EDUCATION CATEGORIES ARE SUBDIVIDED (SOLID LINE: CONSERVATIVE PROBABILITY; DASHED LINE: CENTRIST PROBABILITY; DOTTED LINE: LIBERAL PROBABILITY). This figure shows the marginal effects of education on political probabilities, using ‘no formal education’ as the reference category.

6. 성별에 따른 정치성향 차이 분석

앞의 4절에서는 성별에 따른 정치성향의 확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중도화 될 확률이 3% 높고, 진보화 될 확률이 2% 높게 나왔으며, 동시에 남성은 여성에 비해서 보수화될 확률이 5% 높다. 하지만, 이러한 성별에 따른 정치성향확률의 변화 그 자체도 흥미롭지만, 더욱 흥미로운 분석은 소득, 연령, 교육 그리고 지역 등의 요인들이 정치성향확률에 미치는 영향 또는 한계효과가 성별에 따라서 다른 양상을 나타내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이 분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다항 로지스틱모형을 추정한다:

$$P(y_i = 1 | X_i, D_i) = \frac{e^{X_i' \beta_1 + (D_i X_i') \alpha_1}}{1 + e^{X_i' \beta_1 + (D_i X_i') \alpha_1} + e^{X_i' \beta_2 + (D_i X_i') \alpha_2}}, \quad (6)$$

$$P(y_i = 2 | X_i, D_i) = \frac{e^{X_i' \beta_2 + (D_i X_i') \alpha_2}}{1 + e^{X_i' \beta_1 + (D_i X_i') \alpha_1} + e^{X_i' \beta_2 + (D_i X_i') \alpha_2}}. \quad (7)$$

위에서, X_i 는 앞 장에서 사용한 것과 같이 상수항, 소득수준, 나이, 교육

수준, 거주지역을 포함지만, 성별은 제외되어 있다. 앞 장의 기본모형과의 중요한 차이는 성별더미와 X_i 의 상호작용항인 $D_i X_i$ 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D_i 는 여성을 나타내는 더미변수이다. 예를 들어, 남성의 경우 진보확률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P(y_i = 2 \mid X_i, D_i = 0) = \frac{e^{X_i' \beta_2}}{1 + e^{X_i' \beta_1} + e^{X_i' \beta_2}}. \quad (8)$$

그리고, 여성의 경우 진보확률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P(y_i = 2 \mid X_i, D_i = 1) = \frac{e^{X_i' (\beta_2 + \alpha_2)}}{1 + e^{X_i' (\beta_1 + \alpha_1)} + e^{X_i' (\beta_2 + \alpha_2)}}. \quad (9)$$

따라서, 새로운 모수인 α_j 가 여성이 남성과 어떻게 다른지를 반영하고 있다. 즉, 진보확률의 경우 β_2 가 남성의 진보확률을 결정짓지만, 여성의 진보확률은 $\beta_2 + \alpha_2$ 에 의해서 결정된다. 위의 식 (6)과 식 (7)을 바탕으로 다항로지스틱 회귀식을 추정한 결과 α_j 는 교육수준, 거주지역에 대해서는 통계적 유의수준(10%)을 가지지 못하였다. 그리고 또한 중도확률에 대해서도 통계적 유의수준(10%)을 가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진보확률에 대해서만 그것도 소득, 나이만을 포함한 회귀식의 결과가 표 4에 보고되어 있다. 먼저 표 4에서 남성의 특징을 반영하는 β_2 를 살펴보면 모든 대부분의 변수에 대해서 통계적 유의성을 가진다. 먼저, β_2 의 소득변수에 관해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을 통합했던 표 3과 비교했을 때, 최고소득층(900만원이상)에서 계수값이 더 큰 부의 값을 취한다. 이러한 효과는 연령에 대해서도 동일할 수 있다. 따라서, 남성의 경우 최고소득구간과 연령의 한계효과는 남녀통합의 경우에 비해서 더욱 보수확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변할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이는 추후의 한계효과 분석에서 더욱 명확해질 것이다.

여성의 특징을 반영하는 α_2 는 고소득구간(700만원-900만원)과 최고소득구간(900만원이상)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연령에 대해서도 유의적이다. 더욱이 그 추정값이 최고소득구간과 나이에 대해서 양수이기 때문에 남성에 비해서 보다 진보적일 확률이 높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남녀의 차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한계효과를 통해서 비교해 보기로 한다. 먼저 남성과 여성의 정치성향확률에 대한 소득의 한계효과가 그림 8에 나타나 있다. 남성과 여성 모두 소득이 증가할수록, 여성의 하락 속도가 다소 덜하긴 하지만, 중도확률은 꾸준히 하락한다. 반면에 진보확률의 경우, 남성의 경우 고소득구간에 이를 때까지는 거의 변화가 없다가, 최고소득구간에서 급격히 하락함을 볼 수 있다. 또한 여성의 경우에는 소득이 증가할

계수	설명변수	기준변수	β_2 와 α_2 추정치와 t-통계값	
			추정값	t-통계값
β_2	상수		1.09***	10.83
	100만원-300만원	100만원미만	0.10	1.59
	300만원-500만원		-0.10*	-1.74
	500만원-700만원		-0.22***	-2.70
	700만원-900만원		-0.19	-1.20
	900만원이상		-1.74***	-5.25
	연령		-0.04***	-27.71
	고등학교졸	중학교졸이하	0.35***	6.35
	전문대졸		0.47***	7.45
	대학졸		0.82***	13.05
	대학원졸		0.88***	6.08
	강남3구	강남3구이외	-0.53***	-13.71
α_2	상수		-0.10	-0.88
	100만원-300만원	100만원미만	0.11	1.48
	300만원-500만원		-0.12	-1.55
	500만원-700만원		-0.33	-1.57
	700만원-900만원		-1.03*	-1.72
	900만원이상		1.11*	1.66
	연령		0.01***	3.21

표 4: 여성더미변수를 사용한 ‘진보확률’에 대한 다항 로지스틱 추정결과. *, **, *** 기호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이 표는 여성 더미변수를 사용하여 ‘진보확률’에 대한 다항 로지스틱 회귀식을 추정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Table 4: THE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RESULTS FOR THE PROBABILITY OF BEING POLITICALLY LIBERAL USING A FEMALE DUMMY VARIABLE. This table presents the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results for the probability of being politically liberal, using a female dummy variable.

	보수	중도	진보
중학교졸이하	56	30	14
고등학교졸	44	32	24
전문대졸	34	37	29
대학졸	30	33	37
대학원졸	39	23	38

표 5: 교육수준별 정치성향의 확률분포. 이 표는 각각의 교육수준을 조건으로 하는 정치성향의 조건부확률분포가 %로 표현되어 있다.

Table 5: CONDITIONAL PROBABILITY DISTRIBUTIONS OF POLITICAL IDEOLOGIES BY EDUCATION LEVEL. This table shows the conditional probability distribution of political orientations by education level, expressed as percentages.

수록 진보확률에 대한 한계효과가 약간씩 감소하다가, 최고소득구간에는 남성과는 반대로 상승함을 알 수 있다. 소득의 한계효과는 남성과 여성이 매우 상이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남성의 결과와는 달리 고소득층 여성의 진보성향이 강화된다는 실증적 결과는 단순한 경제적 이해관계 차원에서 설명되기 어렵다. 이는 한국 사회의 성별 분업적 구조와 젠더 갈등의 정치적 맥락 속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선, 남성의 경우 고소득에 이르는 경로가 주로 대기업, 금융, 법조, 정치 등 기득권적 네트워크가 강하게 작동하는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 집단은 자산과 지위를 보존하려는 동기가 강하며, 이는 자연스럽게 보수적 정치성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 여성의 경우 동일한 수준의 소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유리천장과 구조적 차별을 극복해야 하며, 이러한 경험은 성평등, 제도개혁, 사회적 포용과 같은 진보적 가치와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다. 또한, 2018년 미투 운동 이후 젠더 갈등이 정치의 핵심 의제로 부상하면서, 고소득 여성은 성평등과 복지 정책을 지지하는 경향이 강화된 반면, 고소득 남성은 ‘역차별’ 담론 속에서 기득권 위협을 인식하며 보수적으로 결집하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최고소득 구간에서는 남성이 보수화, 여성은 진보화 되는 상반된 현상이 나타나며, 이는 성별에 따른 소득 경로와 사회·문화적 경험, 그리고 한국 사회 특유의 젠더 갈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이해될 수 있다.

다음으로는 남성과 여성의 연령에 대한 한계효과를 살펴보자. 이는 그림 9에 보고되어 있다. 중도확률에 대한 연령의 한계효과는 남성과 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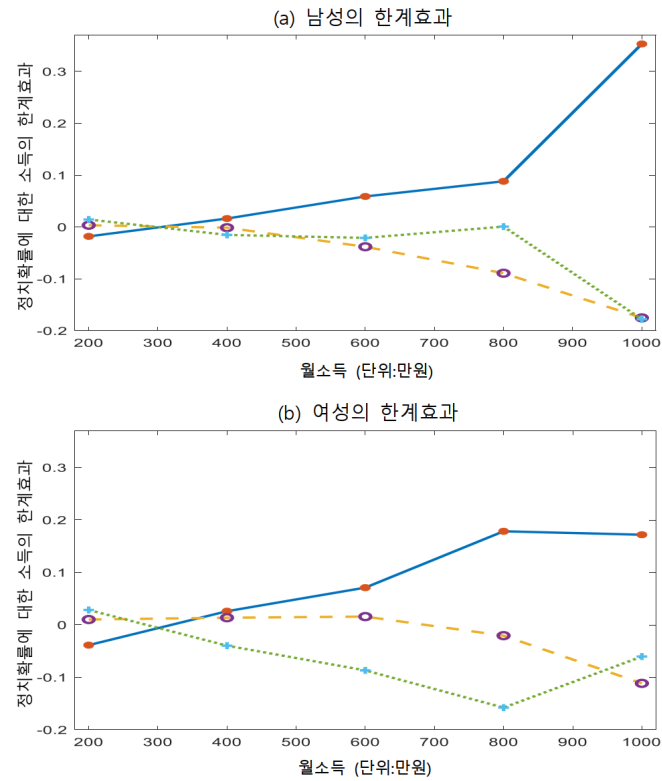


그림 8: 남성과 여성의 정치확률에 대한 소득의 한계효과 (실선: 보수확률, 파선: 중도확률, 점선: 진보확률). 이 그림은 남성과 여성을 나누어 기준소득범주인 ‘월100만원미만’을 사용한 소득의 한계효과를 보여준다.

Figure 8: MARGINAL EFFECTS OF INCOME ON POLITICAL PROBABILITIES FOR MALES AND FEMALES (SOLID LINE: CONSERVATIVE PROBABILITY; DASHED LINE: CENTRIST PROBABILITY; DOTTED LINE: LIBERAL PROBABILITY). This figure shows the marginal effects of income using the reference category ‘under 1 million KRW per month’, separately for males and femal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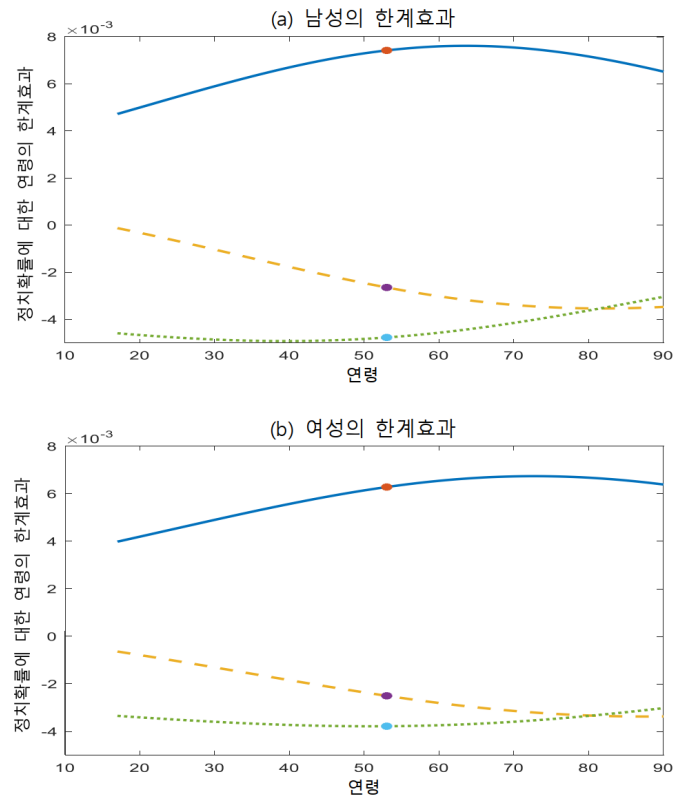


그림 9: 남성과 여성의 정치확률에 대한 연령의 한계효과 (실선: 보수확률, 파선: 중도확률, 점선: 진보확률). 이 그림은 남성과 여성을 나누어 연령의 정치확률에 대한 한계효과를 보여준다.

Figure 9: MARGINAL EFFECTS OF AGE ON POLITICAL PROBABILITIES FOR MALES AND FEMALES (SOLID LINE: CONSERVATIVE PROBABILITY; DASHED LINE: CENTRIST PROBABILITY; DOTTED LINE: LIBERAL PROBABILITY). This figure shows the marginal effects of age on political probabilities, separately for males and femal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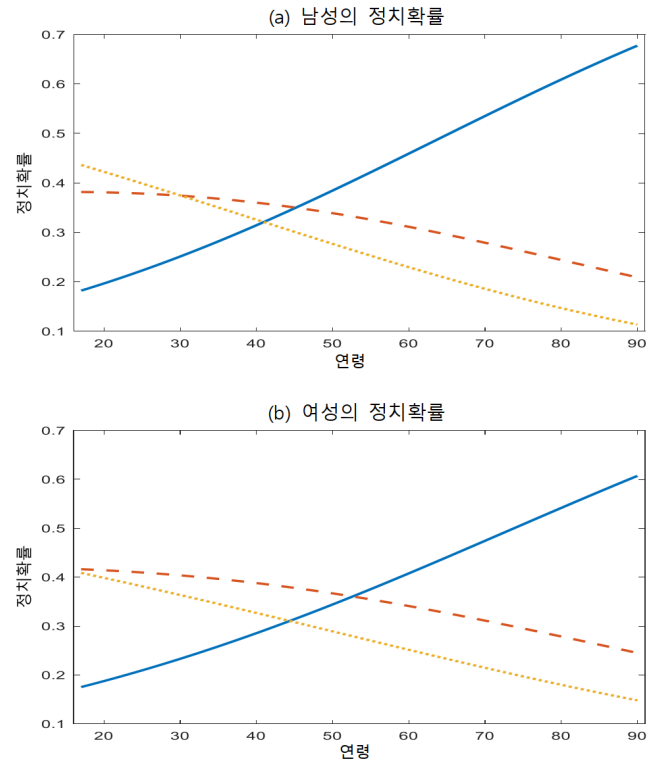


그림 10: 남성과 여성의 연령에 따른 정치확률의 변화 (설명변수들의 통제 효과 반영) (실선: 보수확률, 파선: 중도확률, 점선: 진보확률). 이 그림은 남성과 여성을 나누어 연령에 따른 정치확률의 변화를 보여준다.

Figure 10: CHANGES IN POLITICAL PROBABILITIES BY AGE FOR MALES AND FEMALES (ACCOUNTING FOR THE CONTROL EFFECTS OF OTHER EXPLANATORY VARIABLES) (SOLID LINE: CONSERVATIVE PROBABILITY; DASHED LINE: CENTRIST PROBABILITY; DOTTED LINE: LIBERAL PROBABILITY). This figure shows the changes in political probabilities by age, separately for males and females.

간에 차이가 거의 없지만, 진보확률의 경우에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모든 연령층에서 (특히 10대부터 60대까지) 한계효과가 음의 방향으로 절대값이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남성의 경우 보수확률에 대한 연령의 한계효과가 여성에 비해 양의 방향으로 절대값이 더 크게 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각 연령별 한계효과들의 차이로 인해서, 연령에 따른 정치성향확률의 변화 양상이 남성과 여성 두 집단에 상이하게 나타나게 되는데, 이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 그림 10에 보고된다. 진보확률은 10대 후반 이후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데 여성의 경우 한계효과들의 차이로 인해 남성보다 하락 속도가 완만함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보수확률의 경우 남성이 여성에 비해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각 연령별 보수확률과 진보확률이 상이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90세에 이르게 되면 남성의 보수확률은 70%에 근접하지만, 여성의 경우 60% 정도에 머무르게 된다 또한, 보수확률과 진보확률의 상대적 크기가 역전되는 교차점이 남성의 경우는 41세 정도인데 반해서 여성의 경우에는 45세로 늦춰지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7. 결론

본 논문은 ‘서울서베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정치성향을 나타내는 범주 변수와 소득, 연령, 성별, 교육수준, 지역을 측정하는 변수들을 추출하여, 이 변수들이 정치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으로 다항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사용하여, 각 변수들이 특정 개인의 보수확률, 중도확률, 그리고 진보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하였다.

소득의 한계효과는 거의 대부분의 소득구간에서 큰 변화가 없다가 최상층의 소득구간에서 급격하게 보수확률이 증가하고, 중도와 진보확률이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연령의 효과는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것과 같이 추정되었다. 즉, 젊은 시절에는 진보확률이 보수확률보다 높지만, 나이가 증가할수록 보수확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진보확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40 대 초반에 두 확률은 역전된다. 교육의 영향은 다소 흥미로운데, 대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진보확률이 증가하고 보수확률은 감소한다. 반면에, 대학원을 마치고 석·박사학위를 취득하게 되면 진보·보수확률이 동반상승하고, 중도확률은 감소하는 패턴을 보인다. 여성은 남성보다 진보적일 확률이 높을 뿐 아니라, 소득의 한계효과와 연령의 한계효과에서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흥미로운 실증분석 결과가 도출되었지만, 본 연구의 한계를 지적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본 연구는 2022 년이라는 특정한 시점에서의 횡단면자료를 사용해서 모든 분석을 진행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시간의 흐름에 따른 상황으로 확대해석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예를 들면, 본 연구에서는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보수화 될 확률이 증가하고 진보화 될 확률이 낮아진다고 했는데, 이를 어떤 한 개인의 정치성향이 전 생애에 걸쳐서 일어나는 변화라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개인의 정치성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종단면자료(longitudinal data, panel data)를 사용해야 하는데 이러한 자료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러한 종단면 분석은 추후의 과제로 남기기로 하겠다. 또한, 본 연구는 ‘서울서베이’ 라는 데이터를 사용함으로써 그 분석대상이 서울시민으로 제한된다. 분석의 결과를 대한민국 국가 전체로 확대해석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서울시와 같은 대도시 맥락에서 정책적 함의를 지닐 수 있다. 우선, 소득과 연령에 따른 정치성향의 뚜렷한 차이는 세대 및 계층별 정책 수요의 다양성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세분화된 맞춤형 정책 설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교육수준과 성별에 따른 정치적 태도의 이질성은 단순한 경제정책을 넘어 젠더 평등, 교육 기회 확대, 사회적 포용과 같은 제도적 의제가 대도시 시민의 정치적 태도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특히 여성 고소득층에서 나타난 진보적 성향은 대도시가 지닌 다원성과 개혁 지향성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도시정책 전반에서 성평등적 관점의 도입을 정당화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실증 분석 결과는 대도시에서 나타나는 계층·세대·젠더별 정치 성향의 분화를 이해하고, 이를 반영한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는 사회·정치적 함의를 제공하고 있다.

참고문헌

- Cornelis, I., A.V. Hiel, A. Roets, and M. Kossowska (2009). “Age differences in conservatism: Evidence on the mediating effects of personality and cognitive style,” *Journal of Personality* 77, 51-88.
- Dunn, K. (2011). “Left-Right identification and education in Europe: A contingent relationship,” *Comparative European Politics* 9, 292-316.

- Gross, N. and S. Simmons (2007). "The social and political views of American professors," Working Paper.
- Helgason, A.F. and P. Rehm (2023). "Long-term income trajectories and the evolution of political attitudes,"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62, 264-284.
- Krosnick, J. and D. Alwin (1989). "Aging and susceptibility to attitude chang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 416-425.
- Lee, I. and E. Tipoe (2024). "Education and ideological polarisation: Cross-country evidence and recommendations for higher education," *British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51, 369-393.
- Lizotte, M.K. (2020). *Gender Differences in Public Opinion: Values and Political Consequences*, Temple University Press.
- Meyer, A.G. (2017). "The impact of education on political ideology: Evidence from european compulsory education reforms," *Economics of Education Review* 56, 9-23.
- Weakliem, D.L. (2002). "The effects of education on political opinions: An international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Opinion Research* 14, 141-157.
- Weil, F. (1985). "The variable effects of education on liberal attitudes: A comparative historical analysis of anti-semitism using public opinion survey data,"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0, 458-474.